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 학림암서 추사 만난 후 외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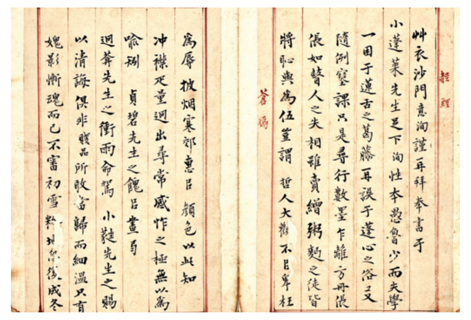
추사와 초의선사의 만남은 필연이었을까. 결과적으로,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이는 동 시대에 태어나, 고락을 함께 나눈 지인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유학자와 승려라는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한 통유가 그렇다. 따라서 이들의 우정은 금생의 인연이 아니라 숙생(宿生)의 인연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15년 겨울, 학림암에서이다. 당시 초의가 무슨 연유로, 상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산 정학연(1783~1859)과의 내락(內諾)이 있어 상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초의가 상경해 두릉을 찾았던 늦가을, 유산은 강진으로 부친을 뵈러 떠난 후였다. 당시의 상황으론 운길산 수종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초겨울이 되자, 수종사는 산이 높고 추워 겨울을 지내기 어려웠다.

이 해 초겨울인 10월에 두릉으로 돌아 온 유산은 초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수락산 학림암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초의가 추사를 만난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초의의 〈해붕대사화상찬발(海鵬大師畵像贊跋)〉에서 "옛날 을유(1815)에 해붕 노화상을 모시고, 수락산 학림암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추사가 눈길을 헤치고 노스님을 찾아와, 공각(空覺)의 능소생(能所生)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하룻밤을 학림암에서 보내고 돌아갔다.(昔在乙酉 陪老和尙結臘於水落山 鶴林菴 一日阮堂披雪委訪 與老師大論空覺能所生 經宿臨歸)"고 하여, 이들의 첫 해후시기를 정확히 밝혔다.



1815년 10월 초의가 추사와 지인들에게 보낸 공람 편지

또 초의가 모신 해붕 노스님(1717~1790)은 선암사 승려로, 다산과 교유가 있었던 인물이라 짐작된다. 당시 추사는 연경을 다녀 온 후, 학림암에서 초의를 만났던 것이다.

추사는 부친이 1809년 동지사절단으로 사행길에 올랐을 때, 군관자제의 신분으로 연경을 방문해 청대의 석학 옹방강(1733~1818)을 만난다. 당시 추사의 나이는 24세이요, 옹방강은 78세의 노인이었다.

젊고, 기백이 넘치는 추사를 만난 옹방강은 자신의 서재 석묵서루(石墨書樓)에 보관된 서화와 장서, 탁본들을 보여주었고, 추사를 '학문과 문장이 해동의 제일이다(經術文章海東第一)' 라고 극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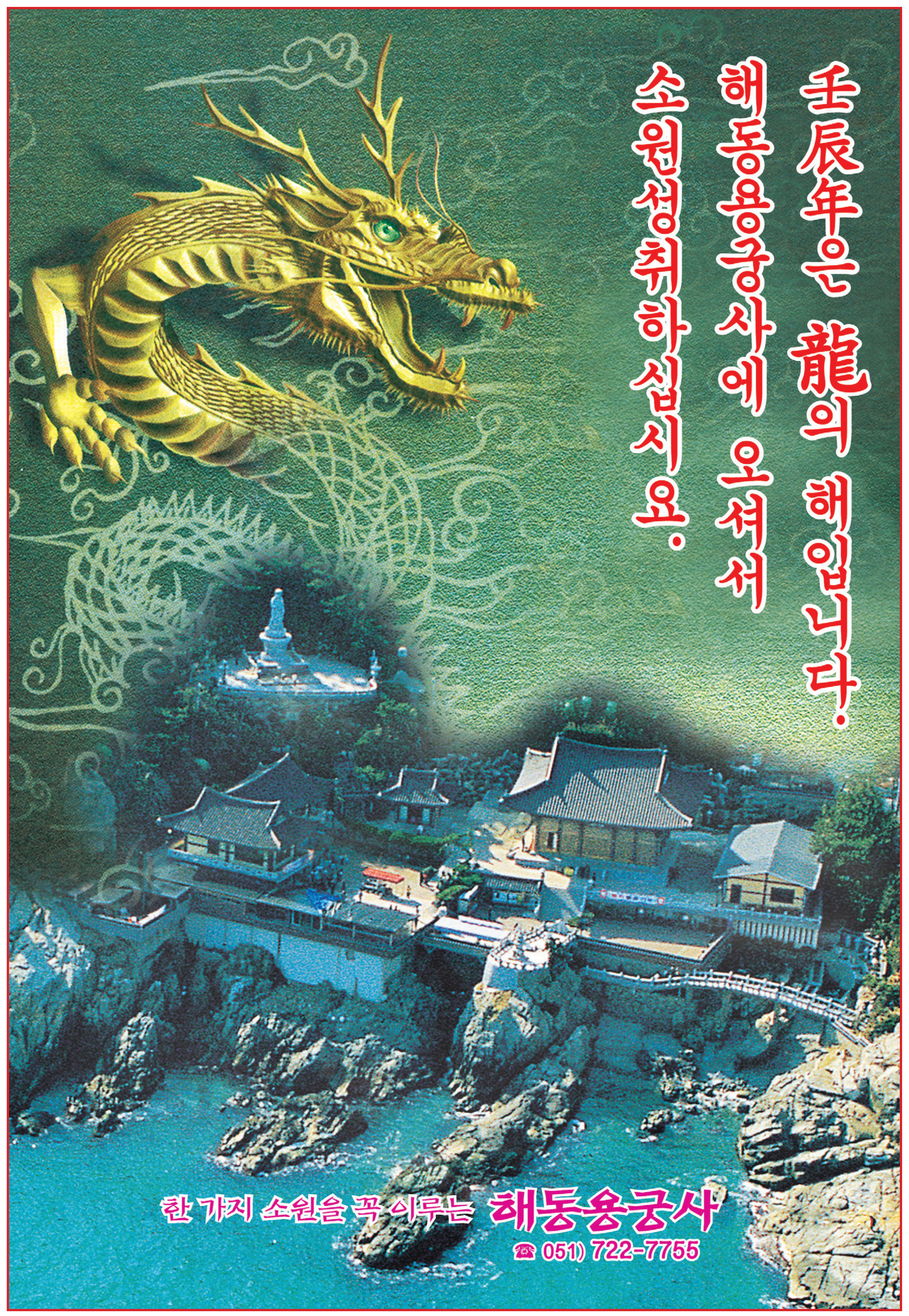
특히 옹방강이 불교에 조예가 깊었고, 사경(寫經)과 차에 일가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후일 추사가 불교에 조예가 깊었고, 격조 높은 차의 안목은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옹방강의 영향이 컸다하겠다. 특히 학림암에서 해붕노스님과 공각(空覺)의 능소생(能所生)을 담론했던 추사의 깊은 성찰은 그의 불교적 안목을 드러낸 것이다. 후일 추사와 초의가 불교적인 담론이나 불경의 고증 문제를 자주 거론했던 것은 이미 이 시절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초의가 학림암에서 추사를 만난 후, 추사의 지인(知人)인 정벽 유최관, 형암 김훈, 소유 박창암을 만나 교유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발굴된 초의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저는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아둔하여 젊어서는 배우지 못해, 하나는 연이은 구설의 갈등으로 곤란을 겪었고, 다시 지식이 천박한 세속의 친구들로 인해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는대로 막히니 의미도 모르고, 다만 문자만 따라 갈뿐이어서 잠시 서책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시야가 넓고 훌륭한 분들이 비천한 사람을 욕되다 여기지 않고 함께 어울릴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洵 性本愚魯 少而失學 一困于連舌之葛藤 再誤于蓬心之俗友 隨例塞課 只是尋行數墨 乍離方册…豈謂哲人大觀 不以卑枉爲辱 披煙寒郊)"

이 내용은 초의가 추사와 그의 지인들에게 공람형식으로 보낸 편지이다. 그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한껏 드러냈지만 지인들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크게 그의 심금을 울렸는지는 이 글의 행간 사이에 오롯이 배어난다. 특히 초의가 만난 김훈은 불화 중에 관음상을 잘 그렸고, 박창암은 박제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골프는 여백 다스리는 마음의 스포츠"

명상 골프 칼럼니스트 방민준 씨

인생이라는 길은 종잡을 수 없는 문제의 연속이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잘 풀어 넘길 것인가는 내 마음 관리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은 바다와 같다. 때로는 요동치고 때로는 잔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출렁임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술술 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이다. 골프칼럼니스트 방민준 씨는 이 모두가 골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장시간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 골퍼들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골프〉〈초월의 길 골프〉〈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등 방 씨가 집필한 책은 대부분 불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골프 이야기다. 명상과 골프 혹은 달마와 골프가 서로 어울리기는 한 것일까? 서양에서 온 골프가 도대체 선(禪)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방 씨는 우선 골프는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스포츠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선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요즘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골프 양궁 사격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은 정신적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그림에 비교하면 여백이 많은 동양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많다는 말은 잡념 망상에 휘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격투기나 구기 종목 같은 스포츠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장시간 필드를 걸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골프는 여백을 다스리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보다는 정신력이 더 중요한 운동이 바로 골프다. "골프는 기술이 20%입니다. 나머지는 정신 즉 마음이 중요하죠. 절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된다고 우쭐하고 안 된다고 교만하면 그 모든 마음이 다음 경기로 이어져 영향을 미칩니다. 신지애 선수를 보세요.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씨익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골프에 있어서는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는 평정심 유지가 중요합니다"

방 씨는 이 모두를 마음의 원리와 연관시킨다. 요동치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경기를 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불교 명상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은 요물과 같아요. 수시로 움직이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마인드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죠? 화나는 마음을 억누르는 거에요. 하지만 이렇게 참기만 한다고 이 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판도라 상자처럼 억눌려 있다가 뚜껑이 한번 열리면 더 큰 화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꾹꾹 참기만하면 한이 돼서 홧병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상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이겨야 된다는 강박강념에 시달리고 있다. 승리를 향해 매진해 가는 격투기나 여타 구기 종목은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땀 흘리고 뛰면서 목표를 향해 가니 고민할 겨를이 없는 거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필드를 거닐어야 하는 골프는 이런 운동과 구분된다. 그래서 골프는 번뇌 망상이 끼어드는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잘하면 지레 겁을 먹고 상대가 잘못하면 우쭐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란해지죠.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골프도 마찬가지에요. 뗏목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듯 이미 지나간 시간이나 다가올 시간을 걱정하지 말아야해요. 좋은 결과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실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죠. 그 순간만큼 오직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 하죠. 그래서 경기에 임할 때는 지나친 욕심, 불안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다투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방 씨는 골프를 '석쟁(釋爭)'의 스포츠라고 한다. 석쟁이란 자신과 객체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골프와 사격 양궁 같은 스포츠는 이런 석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가령 4명이서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그때 누가 적일까요? 이 친구를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 안 좋은 날씨, 잔디 상태에 대한 불만 등 나를 제외한 모든 게 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원래 있는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적으로 두면 운동에 전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모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매우 고차원적인 스포츠에요"

이 원리는 불교서 말하는 마음공부의 원리와 매우 흡사하다. 내 일의 모든 결과를 남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 거기서부터 원인을 밝히고 고쳐나가는 것이 곧 수행 아닌가?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는 그 진리를 알면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원망도 없는 법이다. 방 씨가 말하는 골프 역시 상황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고차원적인 세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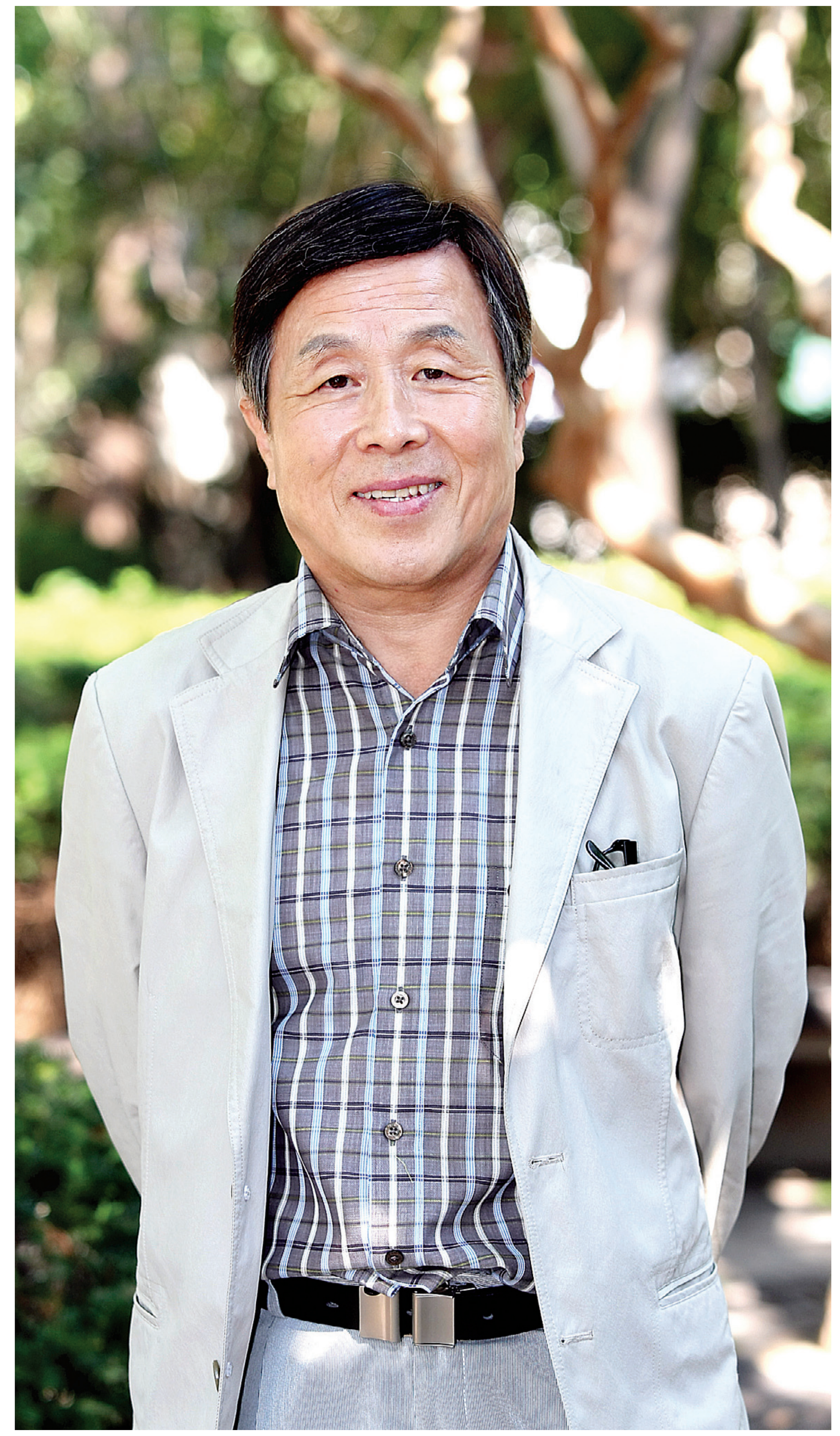
골프, 기술 20% 나머지는 정신
'자신과의 싸움' 잊지 말아야
불교의 마음공부 원리와 흡사

불서 읽으며 불교철학에 심취
'線·善·禪' 3선 골프이론 확립
골프 구도 소설 곧 출간

물론 방 씨 역시 골프 초창기 시절에는 스포츠를 하듯이 임했다고 한다. "예전에 축구도 하고 운동을 잘해서 모든 스포츠에 자신이 있었어요. 보통의 스포츠를 하듯이 골프에 덤볐죠. 하지만 운동 신경과 신체조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또 골프였어요. 왜 잘 늘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깨닫게 됐죠"

이후 그는 불교철학에 심취해 〈금강경〉〈육조단경〉 등 불교 서적을 섭렵했고 노장사상 등 동양철학, 마음을 다스리는 책 등을 읽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세 가지 선(線 善 禪)에 대한 스스로의 이론을 확립한다. '곧게 공이 가야한다'는 첫 번째 선(線)의 의미에 이어 그는 두 번째의 착할 선(善) 즉 정직을 강조했다.

"골프는 정직이 우선입니다. 동떨어져 혼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가 쉽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골프를 신사의 게임이라고 하고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스포츠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돌고나면 한 명의 인간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임원 승진 여부를 골프로 결정한다고 해요. 골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기에요. 정직한가? 속이지 않는가? 또한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냉철한 도전을 하는 사람인지, 동반자를 배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화를 찾는다면 사교 골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역시도 라운드를 돌고난 뒤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방민준 씨는 … 1950년생으로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와 논설위원 실장을 역임했으며 뉴데일리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로 한국일보에 골프 칼럼 '골프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다. 〈명상골프〉〈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등 골프와 선(禪)을 주제로 한 책을 펴냈다.

그리고 세번째 禪이라는 것은 선정을 일컫는다. "우리 대부분이 상대와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있어요. 상대가 잘하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우쭐대고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지쳐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해지면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중심 잡지 못하면 주변에 휘둘려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죠. 그래서 골프에서 중요한 것이 禪이라는 요소입니다"

또한 골프는 대상과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 조건 캐디 도구 이런 대상과 마찰 감정이 생기면 경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마음의 마찰과 대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주변상황에서 눈살 찌푸리는 것이 있다고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길 가다가 느닷없이 뺨을 맞으니 옆의 제자가 때리는 사람을 말렸겠지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생 업보니 당신께서 이 사람한테 맞아야지 해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골프 역시 이런 대칭적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이런 골프를 대하는 자세 못지 않게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등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작정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지 오늘 폭우가 오는지 이런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등산을 감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에 부딪히면 상사와 부딪힐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숙일 것인지 이런 판단도 상황을 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돼요. 또 통찰만 해놓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를 결단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 이것이 선정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것에 몰입을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신지애 선수 이런 사람들 다 구도자 같잖아요?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해요. 생활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물아일체 무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한 내려놓기를 운동에 적용하면 누구나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적대감은 사라지고 배려심이 솟아난다. 마음의 경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경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결국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면 저도 좋아집니다. 상대를 적 관계로 보면 이 모두가 가슴에 맺히게 되고 마음의 그림자를 만들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수행하듯이 운동을 한다면 그만큼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나를 닦는 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삶과 골프에 불교 철학을 적용시킨 방 씨의 사상은 평소 불자로 살아온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6.25 동란 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러 종교를 섭렵하시다가 결국 불교를 택하셨죠. 어머니는 유명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경청하러 다니셨어요. 저도 이런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조계사 근처의 중앙중학교를 다녔는데 늘 학교를 마치면 이곳에 들려 참배하곤 했죠. 불교는 그래서 제 삶과 일상에 늘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사상과 골프를 결합시킨 소설을 출간한다. 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총망라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아마추어 골퍼가 동양의 스승을 만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골프 구도 소설입니다. 인생이란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새롭게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골프에요. 그런 구도자의 자세와 같은 골퍼의 인생을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골프 칼럼 연재는 물론 각종 강의를 통해 골프와 명상을 알리겠다는 방 씨. 그는 그렇게 오늘도 골프를 통해 구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방 민준 씨는 요즘 수묵화 그리기에도 심취해 있다. 특히 골프 장면을 그림으로 승화시켜 눈길을 끈다. 그림은 스윙장면을 수묵화로 표현한 작품.

전법일기

염불 소리에 감동 기도 동참한 등산객

법문보다 염불

겨우 머리를 깎고 아직 승복이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는 초발심 때, 은사스님께서는 수행자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

"출가인은 법상에 오르면 법사가 되어서 법문을 해야 하고, 밭에 나가면 농부처럼 일해야 하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부엌에서는 부엌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탁자의 마지(摩旨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를 내려먹을 수 있을 만큼 염불도 해야 한다."

본사주지 소임을 사시던 당신이 직접 행자들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강의하시고 한명 한명씩 암기한 것을 확인하시곤 하셨다. 때때로 새벽 도량염불을 하시곤 하셨는데 경쾌한 목탁소리와 청아한 염불소리에 산중대중이 모두 그 염불소리에 흠뻑 빠져들곤 했다.

강의시간 중에 한마디씩 배운 염불로 곡조를 익혔고, '나무아미타불' 한구절의 곡조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앉아 부지깽이를 두드리며 일주일이 넘도록 반복에 반복을 거듭했었다.

몇 달 시간이 지나 염불을 완전히 외운 행자들에게는 도량염불을 차례로 시켰는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염불을 했는지 큰절과 산내암자에서 염불을 하는 행자들이 서로 누가 염불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행자생활 중에 초발심자경문을 암송하고 염불을 외우는 것은 생활이고 습관이었으며 최고의 즐거움 이었다.

수덕사는 어느 산중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라고 알려진 산중이었지만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는 엄격함과 법도가 분명하였다. 어느 날 법당예불

그림 · 박구원

"백마디 훌륭한 법문도 좋지만
한마디 염불 마음 움직이기도"
은사 스님 늘 그 중요성 강조

곡조가 정확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방장 노스님께서는 당신 방으로 젊은 승려들을 불러서 직접 중노릇 하는 법을 일러주시고 염불을 가르쳐주기도 하셨다.

계를 받고 겨우 가사장삼 입는 법을 익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당에서 100일기도를 하던 어느 날, 평소예불만 하고 나가시던 주지스님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가시지 않고 자리를 하셨다. 큰스님께서 뒤에 계시는 부담감으로 염불곡조가 흐트러지고 축원을 올릴 때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다. 예상대로 따끔한 지적이 따랐다.

"염불을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무슨 신심을 내겠느냐. 뒤에 부처님이 계셔도 자신 있고 분명하게 염불을 해야지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서는 안된다."

100일기도가 익어가던 어느 날 사시예불을 마치고 돌아서니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한명 함께 하고 있었다.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지나치려는데 말을 걸어왔다.

"스님, 잠깐 말씀 좀 나누어도 될까요?" 사연인 즉 단체로 등산을 왔고, 잠깐 법당에 참배를 하고 산에 가려고 했는데 염불소리가 너무 좋아서 등산을 포기하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곤 양말이라도 사서 신으라고 약간의 보시금을 내놓았다.

그 진지한 얼굴과 태도는 나에게도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순간 "100마디 훌륭한 법문도 좋지만 때로는 한마디 염불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염불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해인사 학인시절 염불습의사를 자청해서 하고, 수덕사에서 행자들을 가르칠 때도 어른스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려 애를 썼다. 포교사단에서 처음으로 염불교육을 할 때도 흔쾌히 강의를 맡았고, 누구라도 배우려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전하곤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법문보다 염불'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사)대한불교 조동종 연수교육 안내

대한불교 조동종은 포교방법과 전법이 뚜렷한 선종으로서 묵조선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에서는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5차 연수교육 및 금강계단(수계 및 구족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 종도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종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556년 10월 17일 (음 9월 3일) ~ 10월 19일 (음 9월 5일) (2박 3일)
장　　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다보사 수련원 043)833-7789
대　　상 : 전 종도 및 불자
준 비 물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집결시간 : 오전 12시까지
문　　의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02)2091-0408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수락산 도선사 (내)
Tel : 02)2091-0408 Fax : 02)952-0408
홈페이지 : 조동종.kr